

# 화순 백신산업특구 기반 확충 속도

### 정부 부처 관계자들 현장 방문 군, 사업 확대·추가 국비 등 건의

화순군이 중앙부처와 협력을 통해 화순백신산업 특구(이하 백신특구) 활성화를 위한 기반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화순군은 최근 화순백신산업특구를 방문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들과 국가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구축 사업 확대 추진 등을 협의했다.

중앙부처 관계자들은 국가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이하 백신지원센터)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사업 추진 상황을 살폈다.

이달 말 착공할 예정인 백신지원센터는 백신 제품화 기술, 백신 임상 검체 분석, 품질 검사 등 백신 개발을 지원한다. 2022년까지 4년간 국비 193억원과 지방비 70억원 등 총 263억원이 투입된다.

군은 백신지원센터의 기능 확대를 위한 추가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추가 국비 보조를 건의했다.

구중군 화순군수는 지난 8월 정부가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과 전략 계획을 발표하자 백신지원센터 기능 확대(국비 1267억)와 m-RNA백신 실증지원 기반 구축 등 5개 연계 사업 추진을 중앙부처에 요청했다.

백신지원센터 기능 확대 핵심은 백신 제품 개발의 기초 상담부터 품질, 전임상, 임상 상담 등 기업의



중앙부처 관계자들이 백신특구를 찾아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화순군 제공>

백신 개발과 제품화 지원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백신 제품화 기술지원단 설치·운영(사업비 296억) ▲백신 제품화 기술지원(134억) ▲해외인증 지원 교육(584억) ▲마스터셀뱅크 구축(131억) ▲검체 분석 및 품질관리(122억) 사업이다.

군은 백신지원센터 기능 확대 사업이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과 전략 계획, 추진 목표와 연관성이 크고 화순백신특구의 인프라가 충분한 만큼 사

업 확대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중군 화순군수는 “정부의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과 전략 추진 계획은 민선 7기 화순군이 힘을 쏟아 온 글로벌 백신 허브, K-바이오 거점 조성구상과 맞닿아 있다”며 “백신·생물의약품 제품화·생산까지 전(全) 단계를 지원하는 인프라를 바탕으로 백신·바이오 성장 엔진을 업그레이드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 나주시의회 “쌀 가격안정화 방안 마련하라”

### 정부 건의안 발표

정부가 최근 정부양곡을 시중에 대량 방출하면서 쌀 가격이 하락하자 나주시의회가 쌀값 안정을 촉구하는 정부 건의안을 발표했다.

나주시의원들은 25일 “쌀가격 안정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1년간 힘들게 농사지은 농업인들의 결실이 헛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쌀 가격 안정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제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날 건의문에서 나주시의원들은 “지난해 수확기 이후 쌀 가격이 오름세를 유지하자, 정부가 불가안정공급 부족 해

소를 이유로 지난 8월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31만톤의 정부양곡을 시중에 방출하는 바람에 4개월째 쌀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는 태풍을 비롯한 자연재해가 상대적으로 감소해 벼수확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쌀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9월 2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kg 기준 5만 3816원으로 전월 대비 0.6%까지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에 나주시의원들은 2021년산 쌀 과잉공급에 따른 선제적인 쌀 시장격리 등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인 쌀 가격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n@kwangju.co.kr

## 장성 하이패스IC 설치 순조

### 50% 공정... 11월 완공 목표

장성 북부권 일대의 호남고속도로 이용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장성 하이패스IC’ 설치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장성군 등에 따르면 현재 고속도로 접속도로 조성사업 공정을 50%가량 마무리했다.

진출입로 설치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도 이달 중 측량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 추진과 관계 기관 협의에 들어가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기존 장성지역 내 호남고속도로 톨게이트는 장성읍 남부에 설치돼 있어 북부권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따랐다. 또 장성읍 북부 농협물류센터와 보해양조 공장 물류차량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10km 이상 남쪽으로 이동해야 해 경제성이 떨어졌다.

이에 장성군은 장성읍 북부권역인 영전리 및 유탕리 일원에 하이패스IC 진출입로를 신설하기로 하고, 민선7기 주요공약사업으로 선정해 조속 시행을 위해 노력해 왔다.

군은 진출입로 위치를 확정하고 국토교통부 고속국도 연결 승인, 한국도로공사 협약 체결 등 주요 절차를 신속하게 매듭짓고 올해 첫삽을 떴다.

장성군은 전체 공정 가운데 50%를 완료한 상황으로 11월 중 모든 공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나주시천연염색 '쪽' 공예품이 제7회 공중문화축전에 참가해 경북공 근정전 앞마당에 마련된 특별전시장에서 선보이고 있다. <나주시천연염색재단 제공>

## 조선 5대 공궐 물들일 ‘천년의 나주 쪽빛’

### 국내 최대 ‘공중문화축전’ 참가... 31일까지 경북공서 특별전

천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나주의 전통 천연염색 쪽빛이 조선의 5대 공궐을 물들이고 있다.

가을 하늘빛에 비유하는 천연염색 ‘쪽’에서 얻는 쪽빛은 고도의 숙련된 경험과 상당한 시간, 노력을 통해 귀하게 얻어지는 우리 고유의 색이다.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에 따르면 나주시천연염색이 국내 최대의 문화유산 축제인 ‘제7회 공중문화축전’에 참가해 첫 선을 보이고 있다.

지난 16일 막을 올린 공중문화축전은 오는 31일까지 ‘오늘, 공을 만나다’를 주제로 조선왕조 5대 공궐인 경북공·창덕궁·덕수궁·창경궁·경희궁과 종묘, 사직단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고궁의 장소성과 역사성을 활용한 공연·전시·

체험·의례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쪽 천연염색의 메카인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이 다양한 쪽 염색 작품들 특별전시 중이다.

재단은 “쪽빛 하늘을 담은 공, 나주”를 주제로 경북공 근정전 앞마당 전시실에서 푸르고 화려한 색감의 쪽 염색 천과 전통 발, 천연염색 생활용품 등을 선보여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재단 이사장인 강인규 나주시장은 “전통의 가치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천연염색의 본고장 나주의 뛰어난 장인들이 만들어낸 쪽 작품과 일상 공예품을 공중문화축전에서 만나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

## ‘다산초당, 함께 잇-다’ 특별전

### 강진군 다산박물관 오늘 개막

강진군 다산박물관 특별전 ‘다산초당, 함께 잇-다’가 내년 2월 28일까지 다산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개최된다.

개막식은 26일 오전 10시 30분 박물관 로비에서 열린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다산초당에 입주해 원림으로 가꾸는 이야기, 초당에서 살아가는 이야기, 초당에서 이룬 업적과 그가 떠난 후 폐허가 된 초당을 다시 복원했던 이야기 등 4가지 주제관으로 구성된다.

이번 전시는 다산초당의 재건을 위해 모금 운동을 주도했던 정다산유적보존회(회장 윤재은)의 결성 65주년을 기념하고자 마련됐다.

보존회는 다산초당의 재건을 열망하는 군민들 주축으로 1957년 10월 26일 발기인 66인이 참여해 결성됐다.

이번 특별전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유물은 다산이 가난에 힘들어하는 제자 윤동에게 직접 써준



다산박물관 전경

‘부환설 증언첩’(‘부’라는 것은 ‘환영’에 불과하다)과 다산초당 재건의 과정이 기록된 ‘정다산유적보존회 사업추진보고서’ 3건 등을 최초로 선보인다.

윤재평 다산박물관장은 “다산초당이 재건되기까지 사업을 주도했던 송령 윤재은 회장과 군민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음을 기억하고자 이번 특별전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